



한동희

출근길에 폐지를 모으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다. 여쭙지도 않았는데 우리자식들은 못하게 하는데 가만있으면 뭐하겠느냐고 똑 같은 말씀들을 하신다.

요즈음은 연수소에서든 폐지나 박스를 그냥 버리지 않고 여러 어르신이 팔고투 갖고 가실 수 있도록 모아두곤 한다.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은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

에 고령화 사회에 살아가는 노인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일생을 살펴보면 노년기만큼 긴 인생주기가 없다. 30년을 노인으로서 생활해야하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가만히 집에서 쉬고만 있을 수도 또한 친구 몇 삼아 여행만 다닐 수도 없는 일이다. 노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길어지고 있으며 지혜로운 한국 음식의 특성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인들의 부지런함 그리고 쾌적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하게 생활하는 노인들은 더욱 많아 질 것으로 본다.

고희가 훨씬 넘었는데도 의치가 아닌 자신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매일 아침운동을 빠짐없이 실천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자 노력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70대

노인들은 과거의 70대가 아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이제 50대처럼, 60대 어르신들은 40대처럼 생각하고 생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사회로부터 이탈하여 삶의 의미가 정지된 것이 노년기가 아니라 보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정이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과업으로 남게 되었다.

동시에 사회도 노인들을 과거처럼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사회적 존재로만 본다면 우리사회는 미래가 없게 될 것이다. 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가 필요하다.

노인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액티브에이징(활기찬 노년)의 실천

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남구에는 어느 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노인들의 긍정적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노인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정보문화의 열풍이다. 인터넷내비게이트, 남구 IT실버강사단,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구청 등을 통한 노인정보화의 물결이 그 어느 구에 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노인정보화는 노인의 고립적 생활을 탈피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노인들에게 긍정적 상호작용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노인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사회적 고립이 시작될 때 지속적인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디지털을 활용한 컴퓨터, 핸드폰 등이 될 수 있다.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교

육을 받고 있고 적극적인 정보문화를 펼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지역사회문화복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이끌어 감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매우 높이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남구 역시 노인들의 복지의료체계 및 문화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문화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길어진 노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정보기기의 공급은 보다 긍정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령화 사회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도전적 사고로 노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의 사고의 전환이

매우 절실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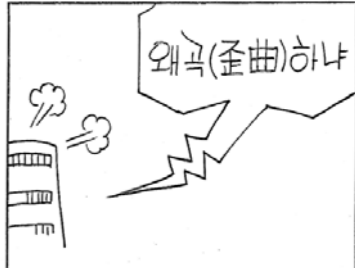
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의 복지관련 학자들이 남구지역의 방문과 구청장의 면담이후에 아름다운 남구의 자연환경과 남구의 복지행정에 대한 구청장의 관심이 특별함에 매우 놀라워 한다.

지난 8년 동안 부산시 복지를 위해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구청장의 경험에 남구 발전의 밑그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는 매우 크다.

취임 2주년을 맞는 이종철 구청장에게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하여 더 세밀한 관심을 요청드리며, 특히 급속히 변화하는 고령화 사회를 문제가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체계,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그 방법을 교육하고 전달할 수 있는 체계, 진정한 사회적 효과 실현되어 남구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남구에 살고 있음을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생활과학연구소 소장



<150>



김영순 의원의 지적처럼 우리 남구청에서는 제도적으로 우리 구 관내 어린이들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어린 아동을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벌여서 아동학대가 없는 남구청을 만들기 바란다.

김진순 (대면6동)



선웅의
1000자 지혜 ⑤

감투

문지족(蚊知足)이란 말이 있다.

모기도 만족함을 안다. 즉, “배가 부르면 더 이상 피를 빨아 먹지 않는다.”란 뜻인데 단, 인간만은 부지족(不知足)이라, 세상의 좋고 나쁜 것이 다 욕심,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하루를 가지면 돌을 갖고 싶고, 또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처음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였다.

“한번 맛을 보면 분명 더 갖고 더 누리고 싶어할 것이다!”

그래서 신은 <욕망의 자루>를 작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영악한 인간은 우려했던 것처럼 가득 찬 것을 모르고 계속 집어넣고 계속 널으려하다 보니 욕망의 자루가 다 찢어지고 밑이 빠져버린 것이다. 그 사실도 모르는 인간은 계속 채우기 위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화 같은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비단 물욕(物慾)뿐 아니다. 권력이나 명예욕도 그에 버금간다. 인간의 여러가지 지속적인 욕망 중에서 가장 지독한 것이 권력욕이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독하면 죽어까지 놓지 못한다고 하겠나?

명(明)나라 말에 남양부(南陽府)의 관아에서 한 태수(太守)가 죽었다. 그런데 아홉마디 점

호시간이 되면 죽은 태수의 혼이 나타나 관모(官帽)인 오사모(烏紗帽)에 허리띠까지 하고 당(堂)에 올라와 남쪽을 향해 앉았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관리나 아전들이 와서 읍을 하고 몸을 조아리면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절을 받았다. 그러다가 날이 흰하게 밝으면 보이지 않았다.

뒤에, 교태수(僑太守)가 부임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결정 못

었다.

“그 사람 감투병이 몹시 심하군. 이미 죽었는데도 자신이 죽었는지를 모르고 인사를 받으려 나타난다니? 감투가 뭐길래 죽어도 잊지 못하는가?”

이튿날, 교태수는 일제감치 관복에 관모를 쓰고 먼저 당에 올라 남쪽을 향해 앉았다. 점호시간이 되자 죽은 태수가 오사모를 쓰고 멀리서 나타났다.

그는 당 위에 어떤 사람이 앉았는 것을 보고 한동안 머뭇거리다 한번 길게 탄식을 하고 사라져 버렸다.

사실 감투와 권력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남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성스러운 의무와 책임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 직분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실천할 때 비로소 밝은 세상이 올 것이다.

반역문화가·용호1동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청소년 시설을 만들자

부산시에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청소년(만9세~만24세)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이 총 22개 설치 운영 중이다. 하지만 문화와 교육의 도시라는 남구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남구에는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있는 곳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호 남구신문으로부터 ‘젊음의 거리’를 만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곳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생긴다면 그 이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수구준설 지속추진

여름철 맨홀안 퇴적물 정비로 하수구 역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대면4동 김장삼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남구 전역의 하수구 준설하여 우수변방 침수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하수구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하수구가 준설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용당초등학교 뒷담 쪽 준설 요청 건은 2008. 7. 2.(수) 맨홀정비 완료하였으나 추가 정비할 곳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도시관리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시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황동식(도시관리과)

이혼속려 기간도입

자치단체에서 이혼준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대면1동 권운영씨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있으며, 각 구청은 그 권한을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혼준제서비스를 위한 상담소나 지원기관 등의 운영은 예산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도적 근거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 6월부터 협의이혼 절차에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 권고,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어 법원사무관 또는 가사사무관은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남구청 민원봉사과에서는 매주 월요일 10시 변호사, 법무사의 자원봉사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

고 있어, 각종 생활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미자(민원봉사과)

현장계도반 지속활동

마구잡이식 전단지 살포와 부착을 철저히 근절해 달라는 대면3동 이상호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최근 불법광고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단속 및 정비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현장정비반을 투입하여 그 정도가 심한 학교주변을 우선 정비하고, 불법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안내문을 제작하여 남구신문과 반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천두(도시관리과)

■詩가 있는 풍경

봉선화 꽃물

류수인
(시인)

“할머니 손톱보다

언니 손톱보다

내 손톱 제-열 끝게 물들어 주라 음”

조심스럽게 두 손 배위에 얹고 잠들면

비몽사몽간에 정말 절- 열 끝게 물든 내 손톱

기뻐 폴짝거리다가 눈이 떠져

얼른 손가락 올려보면

언제 빠져 달아났는지

아주까리 위로 꼭꼭 싸서

무명실로 칭칭 매 두

내 손가락에 꽃 밟은

발밑에 하나 머리맡에 하나

언니가 끝게 물든 손톱 내 보이며

자랑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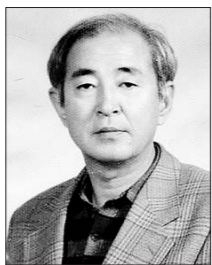
나는 그만 섬을 내다가 섬을 내다가

그 밤 내내

손톱에 꽃물 드는 꿈을 꾸었다.

■ 나의 생각

부정적인 사고에서 탈피



이상호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유일한 힘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정치가, 과학자, 석학, 사상가, 종교지도자 할 것 없이 세계를 빛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과감하게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과 사고로서 모든 고난이나 역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겨냈다.

이들은 또 작은 일이나 큰일이 나 할 것 없이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외는 달리 우리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하

고 아픔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의 하나인 나태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마음속에서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하는 근면과 자신감으로 바꾼다면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창조주의 뜻과 계획대로 태어난 우리들이 마음속에 나쁜 근성을 키운다면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마음 속에 위대한 성군이 자라도록 꾸준히 생각하고 그쪽으로 노력한다면 성군이 될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선하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닮으려고 하면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악하고 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악인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속담은 틀림없는 말이다 할 수 있다. 빛을 가까이 하면 빛의 사람이 되고 어두움을 가까이 하면 어두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다.

인물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을 닮으려고 꾸준히 노력하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긍정과 믿음의 위대한 힘

우리마음 속에 거저씨만큼의 신앙이라도 존재한다면 태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믿음은 엄청난 힘과 기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마음속에 긍정적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위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음의 말에 믿음과 확신과 긍정을 심고 그대로 되리라 믿으며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기쁨은 기쁨을, 희망은 희망을 불러들인다. 파괴는 파괴를, 불평은 불평을, 미움은 미

움을 불러올 뿐이다. 어느 쪽이 플러스인가? 후자가 아닌 전자일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두 전자를 택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밖에 다른 이유는 예언자들의 말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데서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부정적인 요소들은 그만큼 한 민족을 큰 불행으로 이끌 정도로 상상도 못할 만큼 무서운 것이다. 세계적 인물인 ‘노만 펴’ 박사를 예로 들어보자.

“적극적인 사고력”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100만부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려 하루아침에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명성이 높아진 목사인 노만 빈센트 펴 박사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사지가 떨리고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자신감을 잃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생각을 바꿔 행복을 찾자

그러했던 펴 박사는 한시 자신감을 북돋우어 주는 올바른 스승인 ‘조지 리브’의 가르침인 한평생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에 힘입어 청중을 웃고 울릴 수 있는 화술의 능력을 길렀으며 원

필력과 언어 구사력으로 그늘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무수한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양자쪽으로 끌고 나왔던 것이다.

필 박사는 지난 1930년대에 발생했던 미국의 대공황 때 자신감을 잃고 우왕좌왕하던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불행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이다. 그 당시 미국의 경제공황을 극복하도록 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필 박사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과 부정적인 사고로 외롭고 어두운 그늘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도 바뀌고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가 자기를 도우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러한 마음 가짐으로 자기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우리사회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비참하고 불행한 이웃들에게 긍정적인 자신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하겠다. 대면3동·전 부산 문화방송 상무이사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성 주 섭 / 편집주간 하인상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50(우 608-701)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원안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